

배포 일시	2022. 11. 30.(수)	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정혜인 (044-201-4303)
		담당자	주무관	이준호 (044-201-4301)
	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	책임자	과 장	소은정 (053-668-0251)
		담당자	주무관	안성호 (053-668-0252)
		담당자	주무관	권형철 (053-668-0253)
보도일시	2022년 12월 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30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## 12월 1일부터 제주-부산 하늘길 2차선 된다

- 제주⇔부산 간 항공로 300km 복선화... 안전성·효율성 향상 기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항공안전과 운항효율성 향상을 위해 12월 1일부터 제주-부산 간 남해 항공로(A586)약 300km를 복선화한다고 밝혔다.
- 그간 제주-부산 간 남해 항공로(A586)는 단선 항공로에서 마주 보는 항공기 간 고도를 분리하여 교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,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안전과 효율성\*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.
- \* 연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(약 29,000피트~40,000피트)로 지속 상승해야 하나, 반대방향 항공기와 분리를 위해 중간에 수평비행을 유지하게 되어 경제성 저하
- 복선화를 통해 제주방향과 부산방향으로 각각 분리 운영하게 됨으로써 반대 방향 항공기의 상승·강하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간 근접 가능성을 차단하여 항행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, 또한 원활한 항공 교통 흐름으로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.



<단선 항공로 운영>
<복선 항공로 운영>

□ 복선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로에 인접한 군(軍) 사용공역조정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, 항공로와 연결되는 제주·김해·사천·여수공항의 출·도착 비행절차도 변경하였다.

○ 이번에 변경되는 항공로 구조·공항별 비행절차·인접공역 내용 등은 항공정보간행물\*을 통해 국제고시를 완료(10.20)하였으며,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항공로 변경에 따른 운항환경 변화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(11.11)하였다.

\* 항공정보간행물(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): 비행장 및 항행시설, 항공 통신, 항공교통규칙, 수색구조 및 항공로 등 운항에 필수적인 각종 정보를 수록한 간행물

□ 항공로 복선화는 A320 기준 연간 88억원 상당(8.8천톤)의 연료비 절감, 2.8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와 함께, 위성 신호를 이용하는 항공로 설계(PBN\*)로 지상 항행시설 설치비 약 120억원, 연간 운영비 약 50억원 등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.

\* 성능기반항행(Performance Based Navigation): 항행정밀도를 높이고 유연한 비행경로 설정을 위해 기존의 지상의 항행시설을 사용하는 재래식 방식이 아닌 항공기에 탑재된 GPS 수신기 등을 활용하는 항행방식

○ 또한, 해당 구간은 제주-부산, 제주-대구 노선의 국내선뿐 아니라, 대구와 부산에서 태국, 싱가포르, 필리핀 등 동남아를 연결하는 국제선도 이용하는 구간으로 정시성 향상 및 지상지연 감소 등 효과도 예상된다.

\* 일평균 교통량 : 제주-부산 60편, 제주-대구 36편(22.10월 기준), 국제선 41편('19년 기준)

□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“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역과 항공로 혼잡을 완화하여 항공기가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**참 고**

**제주-부산 남해 항공로(A586) 복선화 도면**

